
2020년 제33호 방송심의보고서

2020. 8. 7. ~ 8. 13.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0. 8. 7.	시청률	0.006

【총 평】

‘단박톡’은 ‘남북관계 고착상태에서 북·중·러 관계를 통해 본 한반도 미래’를 통해 남북 관계의 해법을 찾아보고 한반도 위기극복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히, 북한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남북협력도 꾸준히 일관되게 추진하고, 남·북·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중국·북한에 대해 어떤 입장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기획과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또, 북한이 미국과 중국사이에서 줄타기 밀당 외교를 하는지 등 깊이 있는 분석이 시청자의 몰입도를 제고했다.

<북마크TV>는 북마크TV는 묘향산의 여름 절경과 ‘청천려관’ 그리고 개성 ‘민속려관’의 정취와 독특한 음식을 소개했다.

【구성 및 내용】

국제질서를 위해 패권국가는 단 하나가 될 것이고 이에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은 일대일로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최근, 미국에서는 이를 막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대중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 대만, 중국의 첨단산업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중 관계가 악화될수록 북한의 존재 가치가 상승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때로는 미국에 윈크를 보내고 있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 보류 같은 입장표명도 중국의 입김일 수 있다.

정부에서는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의 다자간 협력을 유도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북한의 협력 진전이 더딘 상태이다. 다만 중장기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지속해야 한다.

복잡한 미중 관계 속 한반도 미래를 위한 적절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미중 패권갈등 속 지속적인 외교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미 대선이라는 중요한 이슈가 있으므로 대선결과에 따른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남북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경제 압박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 대선 전까지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한 이야기에는 유의미한 관점이 담겨 있었다. 미·중 공감대 형성을 통해 북한 비핵화도 전략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점을 조언했다.

<북마크TV>는 북한의 6대 명산 중 하나인 묘향산과 개성의 맛난 음식을 소개했다. 북한 묘향산 등반 모습을 통해 묘향산의 시원한 물줄기, 형제폭포의 절경, 자연산 도라지 채취 광경이 그려졌다. 더덕, 두릅 등 산나물 밥상, 150년 전통 개성 민속려관의 궁중요리 맛기행도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프로그램	최일구의 정말		
방송일자	2020. 8. 7.	시청률	0.003

【총 평】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발휘한 조달청의 “경제 활력과 위기 극복의 힘, 공공조달”편을 방송하였다. 특히, 공공조달의 역할과 혁신, 그리고 조달의 진화를 설명해 조달청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조달청 시스템과 벤처와 기업을 돕는 조달 업무의 세계까지 언급해 조달청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밖에 조달청의 혁신 정책은 무엇인지, 혁신적 신산업 육성과 혁신 장터인터넷몰 운영을 통해 조달행정의 진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코로나19 위기와 마스크 대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공공조달 큰 역할과 기능이었다는 점, 4차 산업혁명에 맞춘 혁신 조달 등을 설명하여 시청자들에게 ‘생소한 조달청’이 아닌 ‘친밀한 조달청’으로 인식하게 했다.

【구성 및 내용】

"조달(調達)"은 '필요한 곳에 자금이나 물자 따위를 대어 줌'이란 뜻이다. 이런 공공 서비스를 맡고 있는 부서가 '조달청'이다. 조달청은 정부와 정부, 정부와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공공기관 및 지자체에서 필요한 물건, 고속도로 국도, 청사 건축을 위한 계약절차를 공공전자조달 통합플랫폼 나라장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가의 대동맥, 정부조달을 책임지고 있는 조달청의 역할부터 나라장터 시스템 소개, 공공조달의 규모와 현재 맡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안들을 위주로 소개했다. 초기 창업기업의 공공시장 진출문 "벤처나라"는 혁신제품은 중소기업도 진출이 가능하다.

마스크 품귀 대란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에 큰 역할을 보여준 공공조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차후의 위기 상황을 대비해 어떤 업무에 주력하고 있는지 알려주었다.

또, 경제를 뒷받침하는 조달행정측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구매 목표제를 설명하고 벤처나라 시스템과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장점과 기대효과를 위주로 다루었다. 공공조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향후 더욱 확대될 사업 내역도 소개했다.

공적마스크 보급에 큰 역할을 한 나라장터 시스템을 새로운 기술과 시장 여건을 반영, 차세대 나라장터로 개편작업중이며, 2023년까지 종이없는 조달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공조달의 투명성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 평가절차 투명화, 공정한 평가 과정을 마련하고 조달청 직원들은 평가위원 및 과정에서 배제, 기업과의 사전 접촉 금지,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혁신조달의 꽃을 피우고 물품중심 조달에서 디지털 서비스도 혁신조달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또, 7월부터는 국방부 조달을 실시해 나라종합쇼핑몰에서 피복 및 음식 조달을 진행한다.

프로그램	PD리포트 이슈 본(本)		
방송일자	2020. 8. 9.	시청률	0.010

【총 평】

최근 전세대출 규제와 부동산 임대차 보호법의 시행으로 부동산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도 나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을 말하다’는 시의적절한 기획이었다. 특히, 주택정책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 주거안정으로 내집 마련 걱정이 없는 사회를 조기 정착하려는 정부의 방침을 적극 알렸다. 부동산 임대차3법, 전월세 거래제,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내용을 상세히 알려준 점도 정보제공, 정책알림이 역할로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1부 ‘갭투자와 다주택자’에 이어 2부 ‘주택공급과 주거 사다리 강화’는 부동산 문제의 근본원인과 해소 대책을 연이어 방송해 긍정적 효과를 증폭시켰다. 정부정책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정책불신감을 해소하고 정책수용성을 높여 소통의 가교역할을 한 부분이 뛰어났다.

【구성 및 내용】

‘부동산 대책을 말하다. 2부 주거안정과 주택공급’라는 부제로 전세자금대출 규제와 임대차 3법,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의 정책 설명, 오해와 진실 등을 다뤘다. 집값안정을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오히려 무주택자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사다리를 막을 수도 있다는 오해에 대해 정책 설명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해와 진실이라는 틀 속에서 논란 그 자체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점에 초점을 잘 맞추었다.

투기성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제한의 취지와 정확한 해석 그리고 젊은 층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내용과 대출상품을 소개함으로써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의구심과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정부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투기성 갭투자를 잡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무주택자와는 상관이 없고, 전세대출은 전세를 얻기 위한 용도로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해 정책에 대한 과도한 해석을 바로잡았다고 생각한다.

전세대출 제한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문답식으로 주택금융공사 본부장의 설명을 통해 정리했는데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젊은 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보금자리 대출’과 ‘디딤돌 대출’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였고, 실제 20대 후반의 실제 사례를 통해 소개해 더 와 닿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소위 ‘생애최초특별공급비율’이 50%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택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였다. 얼마 전 통과된 ‘임대차 3법’이 임대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주택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을 골자 위주로 설명해 ‘주거안정과 주택공급’에 대해 잘 정리했다.

프로그램	귀농다큐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0. 8. 9.	시청률	0.075

【총 평】

“우리는 가야산 파프리카 가족입니다”는 가족 모두가 경남 합천군 야로면으로 귀농하여 파프리카 재배 및 생산, 유통, 상품개발까지 도맡은 열정 가족을 방송했다. 파프리카 농업에서 희망을 찾은 귀농 5년 차 가족은 “열정이 열정을 낳고, 사랑이 열정을 덮음”을 고스란히 보여줌으로써, 서로의 안쓰러움을 위로와 이해로, 칭찬과 격려로 가족의 힘을 보여주어 시청자들에게 평온함을 선물했다.

파프리카 농장을 중소기업처럼 운영 중인 귀농 가족의 모습을 통해 어렵고 고되지만 농업의 희망을 보여주며, 귀농가족이지만 서로 다른 4인 4색의 모습을 매끄럽고 촘촘하게 구성하였다. 또한 귀농과정과 귀농 선택, 농법 연구나 파프리카 생산 매커니즘, 6차 산업 개발 등 귀농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잘 반영하였고, 시청자들에게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한 방송이었다.

【구성 및 내용】

시설원에 사업을 하다 농사에 뛰어들어 파프리카와 새싹삼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까지, 농업을 이룬바 6차 산업으로 키워낸 부부와 두 아들의 성공 스토리를 소개했다. 농업 시설 개발 및 설치 전문가였던 남편을 통해 스마트 팜 기술과 농업의 융복합 산업을 일窥하는 소식을 전했다.

파프리카 비닐하우스의 규모와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남편이 온실 농업의 시작과 실패 그리고 극복에 이야기를 중심으로 큰 아들은 파프리카를 활용한 빵을 만드는 방법 소개와 꿈에 대해 얘기했다. 둘째 아들은 중국 유학을 포기하고 귀농에 뛰어들어 부모님의 사업에 합류하게 된 계기와 스마트 농법에 대한 알려주었다.

또, 아내가 활동하는 여성 농업인 모임 현장을 소개하고 이 현장에서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맺는 모습, 여성 농업인들이 자신이 직접 재배하는 제품을 소개하는 장면 등을 담았다. 마무리는 가족이 함께 바이오산업 진흥원을 방문해서 미래의 꿈을 그리는 모습을 그려냈다. 두 아들을 통해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과 미래를 발견하고 디지털을 활용한 스마트 팜을 보여주고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이었다.

특히, 다지붕 형태의 벤로형 유리 온실의 첨단화, 다겹보온커튼으로 열 저장 및 열 관리를 통해 전기료의 절감, 온실속의 농산물에 물주기와 보온 조절 등을 스마트 폰에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조절하고 시행하는 모습에서 새로운 기술로 농업 생산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여 농업에 대한 인식 전환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유통을 커버하는 이른바 6차 산업의 현장을 볼 수 있었고, 주인공의 성공은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모델로 삼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귀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나 농업에 관심있는 젊은이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0. 8. 10.	시청률	0.026

【총 평】

주위 온정으로 이어가는 '3천 원 청년식당' 아이템은 우리사회가 아직 온정이 살아있고 살맛나는 세상임을 일깨웠고, '산모·신생아 건강서비스 확대' 는 정보제공과 정책알림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또, '시원한 활옥 동굴'은 장마와 코로나로 찌든 피서철 볼거리로 시청자 만족도를 높였다. 900미터 길이에 각종 조명으로 신비감을 더해주는 동굴 내부를 카약을 타고 이색체험을 할 수 있는 피서여행지로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특히, '청년식당'은 지역사회에 확산시킬 만한 가치가 있는 신선한 소재였다.

【구성 및 내용】

- 주위 온정으로 이어가는 '3천 원 청년식당'
정릉시장에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청년들이 단돈 3천 원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식당이 운영되고 있다. 식당 주변으로는 대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많은 청년들이 찾고 있다. 해당 식당은 가톨릭 성북 교구에서 청년 고독사를 계기로 문을 열었다. 적자운영이 우려되지만 주위에서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며 유지되고 있다. 인근 기업, 상인, 주민들, 그리고 사찰에서도 음식재료 후원이 이어지며 성당신도, 인근주민, 대학생들의 자원봉사도 계속되고 있다.
- 무더위 독서로 이기세요. 8월의 사서추천도서
코로나19와 무더위로 힘든 요즘, 8월에 적합한 도서를 추천했다. 인생에 필요한 질문과 답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천년의 수업', 가족 내 다양하고 미묘한 갈등, 그리고 해결방법을 다룬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 그 외 사회과학, 자연과학, 문학분야의 추천도서를 소개했다.
- [정책인터뷰] 산모, 신생아 건강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가정의 비용을 줄여주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하였다. 지원 대상은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월 가구 소득 569만 원 이하의 가정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출산가정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하여 산모영양관리, 신생아 목욕관리, 청소 등의 서비스 지원이 이뤄진다.
- [영상뉴스] 시원한 활옥동굴
충북 충추에 소재한 국내 유일 활석 광산 동굴인 활옥동굴은 폐광 이후 방치되었다가 관광명소로 변모했다. 편도 900m, 왕복 1.8km 구간에 다양한 관광테마요소를 조성하였다. 건강테라피 길도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카약체험은 동굴 내 인기 있는 관광 코너다. 동굴은 LED와 네온불빛을 활용한 조명을 차용해 시간적인 신선함도 제공한다. 이미 상반기 2만 여명이 다녀간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경제		
방송일자	2020. 8. 11.	시청률	0.045

【총 평】

‘경제&이슈’는 “상반기 경상수지 흑자 192억 달러, 경기회복 기대와 글로벌 위기 대응”을 통해 6월 경상수지가 8개월 만에 최대 흑자폭을 이룬 것에 대한 해석과 하반기 글로벌 위기 대응법을 살펴보았다. ‘S&News’는 #뚝뚝해진 안경, #외국인도 예외 없다, #극단적인 기상현상” 등을 소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6일 상반기 경상수지를 발표하며 불안의 터널은 지났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경상수지 발표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다. 즉, 상반기 저점이었던 경상수지가 하반기 회복으로 흑자를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위험상황이나 글로벌 위기를 이겨낸다면 지속적인 회복도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과 이와 달리, 하반기 불안을 예상하는 의견도 있다.

【구성 및 내용】

경기회복 기대와 글로벌 위기 대응과 관련, 상반기 경상수지와 수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하반기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위험요소까지 예상해 보았다. 또, 국가 예산 추이를 살펴보고 4차 추경에 대한 가능성도 점쳐봤다.

하반기 글로벌 경제 상황 및 우리 경제 상황의 큰 관건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여부에 크게 좌우될 수 있고 향후 5년간은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규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을 예고하였다.

낙관할 수 없는 하반기 경제는 미국의 불안정한 모습이 지속될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지 못함이 악재임을 전했다. 수출입이 지속적으로 불안정하고 어려움을 예정인 상황에서 내수만을 활성화 시키는 부분 밖에 없음을 전하였다.

국가 예산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서 2021년 예산 확대 편성 비율을 두자릿수 이상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 이유는 추경을 자주 편성하게 되면 국회통과 여부 등에 대해 찬반 논란이 심해서 제때 시의적절하게 추경 예산을 집행하기 어렵게 되므로 본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편이 경제 상황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재난지원금을 더 지급해서 경기활성화를 시키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공감되는 부분이었고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실업자와 수입이 없는 가정 경제에 조금 더 보탬을 주는 것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사항】

24:26 ‘S&News’ 좌상단 자막 “#외국인도 예외없다”에서 “예외없다” 띄어쓰기를 잘못 표기했다. “예외 없다”에서 “없다”는 부사에서 나온 단어로 “예외 없다”로 띄어써야 한다.

프로그램	KTV 온라인 세상		
방송일자	2020. 8. 13.	시청률	0.000

【총 평】

KTV 온라인 세상 주제는 ‘역사’와 ‘평화’로 ‘116년 만에 국민 품으로! 용산공원 첫 개방 행사’와 대통령이 만난 사람들 ‘하루멘터리’ 등을 소개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 행사와 관련 지난 역사의 아픔과 상처를 되돌아보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역사의 교훈을 잊지 않음에서 출발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인 용산공원 개방과 관련 정세균 총리의 인사말을 전하고 대통령이 만난 사람들 ‘하루멘터리’는 6.25 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7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국군전사자 유해 147구를 향해 미안한 마음을 가진 6.25 참전용사들의 이야기와 참전유공자를 위한 보훈제도, 국가의 예우 의지를 담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6.25 전쟁 호국영웅 유해를 고국으로 맞이하는 소통 행보를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정신의 가치와 국가존재의 소중함을 전하였다.

【구성 및 내용】

현장소통 ON은 6.25 전쟁 제70주년 ‘평화의 패’ 전달식 현장을 취재하고 전쟁의 의미를 되짚어 보았다. 또, 용산공원 첫 개방 행사를 소개하고 역사속 용산공원의 의미를 되짚었다. 하루멘터리는 6.25전쟁 70주년 행사를 함께한 참전용사들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을 전달하고 그들을 위해 어떤 복지 정책이 마련되었는지 알려주었다.

6.25 전쟁 제70주년 ‘평화의 패’ 전달! 소식에서 평화의 패는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국 용사들의 수통, 반합, 철모, 강원도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을 녹여 만들었음을 전했는데 그 의미가 매우 뜻깊었다.

미군 용산기지 반환을 통해 새롭게 국가공원으로서 조성되어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역사적 첫걸음으로 용산공원부지 개방은 1904년 한일의정서 이후로 묶여버린 서울 한복판이 국민의 진정한 휴식 공간의 국가공원이 탄생될 것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다.

하루멘터리는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147구의 국군 용사들의 유해가 조국의 품에 안기는 뜻깊은 현장을 함께할 수 있어서 가슴 뭉클했다. 특히, 국군전사자 유해 147구가 고국으로 송환되는 장면을 담아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어냈고 특히 대통령 앞에서 부대 복귀를 고하는 연로한 참전용사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또, 6.25 참전 조종사의 손자가 이들 유해의 귀환을 호위했다는 소식이나 노병의 귀환 신고는 오랫동안 기억될 장면이었다.

【참고사항】

19:50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혜택’에서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오기

프로그램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방송일자	2020. 8. 13.	시청률	0.000

【총 평】

우리나라에서 하루 평균 37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다. 2018년 자살자 수가 1만3,670명에 이른다. 노인 자살률도 급증추세이다.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다. <현장출동 안전이 먼저다> ‘자살, 관심이 예방이다’는 우리나라 자살 실태와 유형, 원인, 문제점 등을 짚어보며 그 심각성에 경종을 울리는 기획이 돋보였다.

또한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활동과 예방법을 제시해 정보제공과 정책알림이 역할, 캠페인 효과를 높인 구성이 눈길을 끌었다. 자살 암시를 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고 경찰과 함께 가족친지에게 알려야 하는 법 등 해결책을 제시했고, 자살 충동을 경험했던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 자살 충동을 이기는 요령 등을 알려 설득력을 높이는 구성이 집중도를 높였다.

【구성 및 내용】

자살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문제를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막기 위해선 가족과 사회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자살이 대부분 정신적 고립에서 발생한다는 의미있는 메시지였다. 특히 ‘생명의 전화’, ‘생명지킴이’ 등 예방 차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시도를 내용적으로 설명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전했다고 생각한다.

2018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3,000여명으로 전년대비 1,200여명이 증가하였다. 이에 자살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더욱 중요해졌고 경찰들은 자살방지 정기순찰을 돌고 있다. 자살 사망자 중 남성이 72%, 여성이 27% 정도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률이 증가한다. 연령대별 자살동기는 10~30세 정신적 어려움, 31~60세 경제적 어려움, 61세 이상은 육체적 어려움이 주요 동기이다. 한강물을 바라보며 문득 느끼는 충동이나, 농촌에서 너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농약을 제대로 관리해 충동적 자살을 막아야 함을 전했다. 또, 자살욕구가 그 순간, 충동에 의해 이뤄짐지는 자살의 본질도 살펴본 기회였다.

생명의 전화에서 자살로 아들을 잃은 박인순 씨가 들려준 진정성 있는 이야기는 감정이입 효과가 있었다. 201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살 위기로 전화가 온 사례가 8,100여건 정도가 된다. 생명의 전화는 24시간 365일 자살위험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5분 이내 119 구급대각 출동하여 자살위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상담센터에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담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45,000여건, 하루 300여건의 상담전화가 진행되었다. 주변에서 자살을 암시하는 표현을 한다면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유가족 심리지원 소개하면서 자살이 또 다른 자살을 부를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